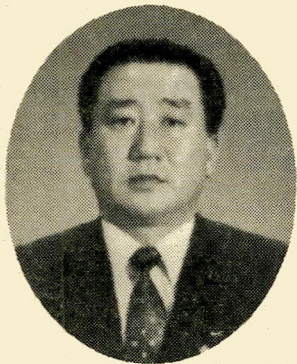


여94.7.8

기형아예방 1천만 서명운동퍼는 임창오 씨

매년 5만명이 기형아, 산과적 의료서비스 확대 절실



한국기형아예방협회 임창오 회장(45, 복지신문사 대표)은 “기형아! 절대 예방할 수 있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세계가정의 해를 맞아 기형아예방을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 및 전국순회 가두 사진

전을 펼쳐나가고 있다. 지난 6월24일 오후 2시 명동성당 입구에서 출범식을 가진 임 회장은 서울을 필두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춘천, 제주 등 주요도시와 포항 등 30여 중소도시를 계속 순회하면서 기형아예방 활동을 펼치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가임여성 은 1천2백만명입니다. 이 중에서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 70만명중 약 7%인 5만여명이 기형아입니다. 환경공해, 약물, 각종 세균과 바이러

스, 성병, 예방주사 미접종과 임신부의 각종질환, 유전과 돌연변이로 기형아의 원인은 다양해 지면서 점차 늘어나는 심각성에 직면해 있어요.”

주부, 사업가, 회사원, 의사, 사회복지사, 장애인지도자, 종교인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기형아 예방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임회장은 지난 91년부터 기형아예방에 대한 조사연구를 거쳐 기형아 원인, 예방을 위한 계몽도서 <설마?—기형아! 절대 예방할 수 있다>3권을 출간

할 예정이기도 하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설마, 내 아기는 괜찮겠지하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기형의 원인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임신부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각종검사의 의료수가가 너무 높아 많은 임신부들이 산전검사를 받지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는 산과적 의료서비스의 보험적용 확대실시가 시급하고 개인차원의 관심도 절실하다고 한다.